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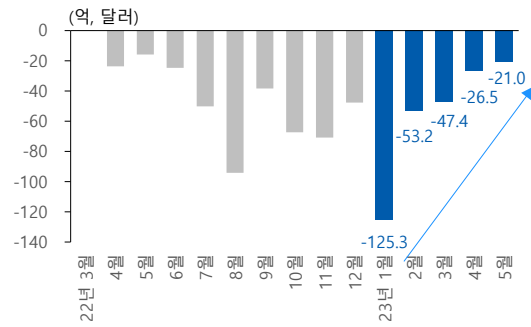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 결과들

1. 5월 한국의 수출입, 부진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

- 한국의 5월 수출은 전년대비 -15.2% 감소. 지난해 5월 수출 실적이 역대 5월 중 2위의 실적을 기록하며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대비 감소.
- 5월 수출금액은 전월대비 +5.4% 증가, 일평균 기준 수출금액은 2.4억 달러를 회복,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우려가 높은 무역수지 적자는 15개월 연속 지속. 하지만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최근 유가 하락과 주요 수출 제품의 수출 물가 반등을 고려하면 무역적자 해소는 점차 진행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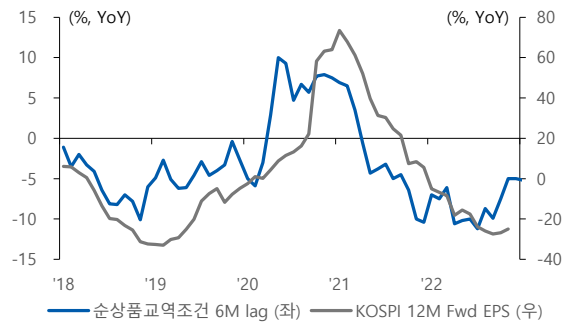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시차가 있지만 함께 살펴볼 지표들의 변화

-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으로 정의. 3월 전년대비 -5.0%에서 4월에는 전년대비 -0.5%로 반등.
-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원달러 환율과 이익 지표에 선행성을 보임. 따라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개선은 결국 수출을 통한 구매력 및 채산성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서로 생각.
- 4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13.2%p 상승. 5월 수출 실적을 고려할 때, 완만한 조정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개선은 수출을 통한 구매력 및 채산성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서.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5월 한국의 수출입, 부진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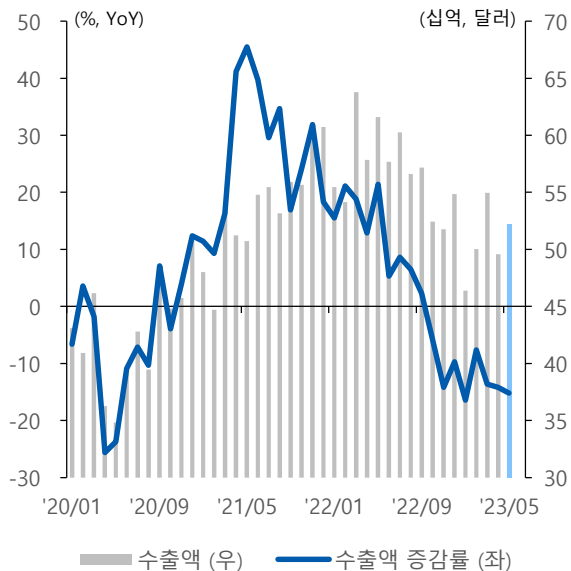
한국의 5월 수출은 전년 동월(616억달러)대비 -15.2% 감소한 52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수출 실적이 역대 5월 중 2위의 실적을 기록하며 기저효과로 인해 상징적인 수치인 500억 달러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감소를 기록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5월 수출금액은 전월대비 5.4% 증가한 수치이며, 일평균 기준 수출금액은 2.4억 달러를 회복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 된다.

한편 수입은 전년대비 -14.0% 감소한 543.4억 달러를 기록했다. 원유(-16.2%), 가스(-20.2%) 등 에너지 수입이 -20.6%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수입은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5월 들어 유가 및 에너지 가격 하락이 커진 것을 반영하면 익월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 폭 축소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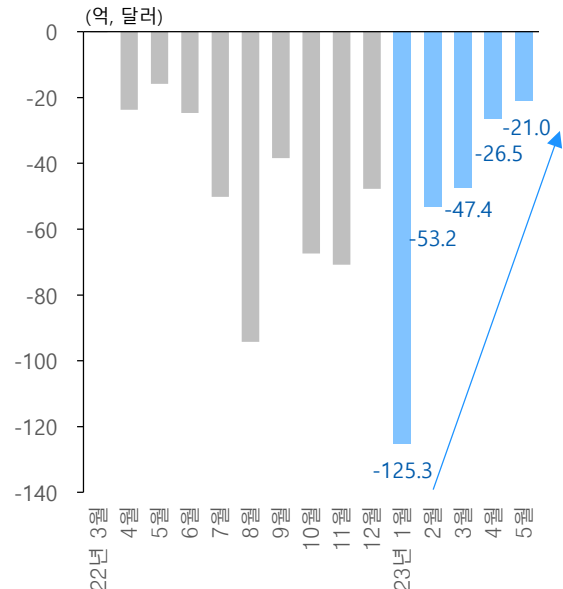
우려가 높은 무역수지 적자는 15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다만, 최근 유가 하락과 주요 제품의 수출 물가 반등을 고려하면 무역적자 해소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차트1] 한국의 5월 수출은 전년 동월(616억달러)대비 -15.2% 감소한 522.4억 달러를 기록.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무역수지 적자는 15개월 연속 지속. 하지만 적자 폭이 축소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개선되는 움직임, 모멘텀 반전으로 연결되기 위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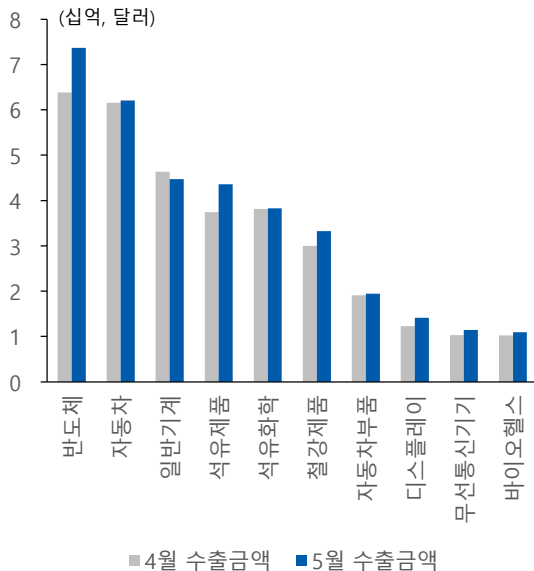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5월에도 하드 시클릭컬 품목의 수출 호조가 특징적이다. 특히 자동차는 11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49.4% 증가한 62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일반기계의 경우 40억 달러 수준의 수출 실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반도체의 수출액 증감률은 감소를 지속하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수출액 부분만 놓고 보면 지난 4월 대비 큰 폭에 반등이 확인된다. 반도체 수출액은 4월 63.8억 달러에서 5월 73.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주요 6개 지역별 수출 실적을 살펴보면, 모든 지역별 전년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5월의 높은 기저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지난 4월 실적과 비교해서는 EU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수출액이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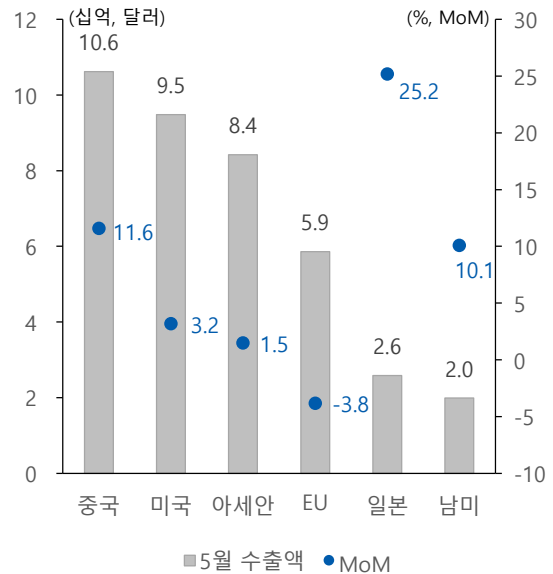
또한 일평균 수출 기준으로는 미국, EU, 아세안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시장으로 수출액 증감률이 모두 증가한 부분도 참고할만하다. 아직 글로벌 수요 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지만, 한국의 5월 수출 결과에서는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이 확인되는 만큼, 모멘텀의 뚜렷한 반전 시점도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

[차트3] 일반기계를 제외한 주요 수출 품목들의 수출금액은 전월대비 증가. 특히 반도체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주요 지역의 전년대비 수출액 증감률은 지난해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감소했지만, 전월대비로는 증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3. 시차가 있지만 함께 살펴볼 지표들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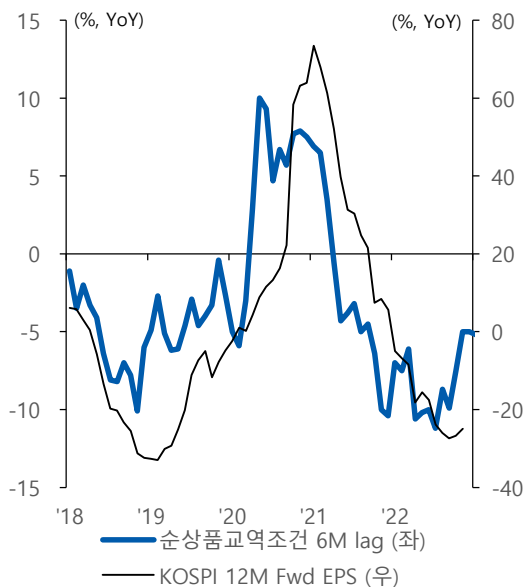
월말에 발표되는 지표 중에는 교역조건지수와 수출입물량지수가 있다. 해당 지표는 수출입 동향과 시차가 존재하지만, 교역조건지수는 주식시장의 이익 지표에 선행하며, 수출입물량지수는 실제 수요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참고할 만 하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으로 정의된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긴 시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3월 전년 대비 -5.0%에서 4월에는 전년 대비 -0.5%로 반등에 성공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원달러 환율과 이익 지표에 선행성을 보인다. 따라서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개선은 결국 수출을 통한 구매력 및 채산성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서로 생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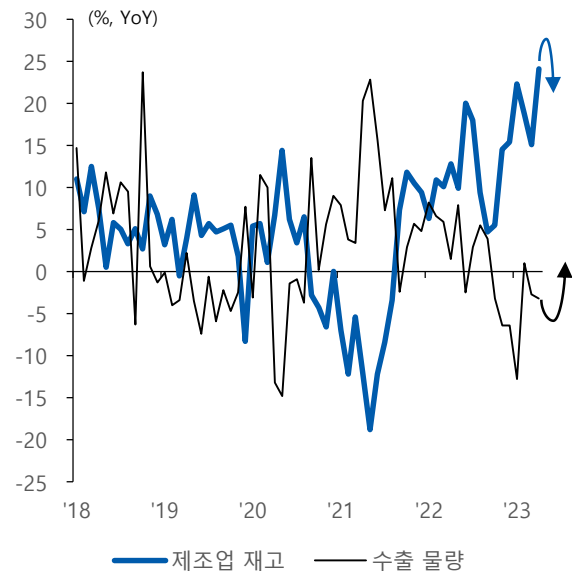
4월 수출물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했는데, 동기간 재고율은 전월 대비 13.2%p 상승했다. 지난 4월 생산 및 출하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5월 수출 실적을 고려할 때, 4월과 5월 완만한 조정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분기 중반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회복 흐름은 약하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차트4] 순상품교역조건지수의 개선은 결국 수출을 통한 구매력 및 채산성 회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단서.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 4월 재고율은 MoM +13.2%p 상승. 5월 수출 실적을 고려할 때, 완만한 조정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예상.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